

물질 강조하는 시대...정신적 기쁨에 대한 고찰

사람을 안다는 것

데이비드 브룩스 지음
이경식 옮김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인간관계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더더욱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대상이 돼 쓰라림을 맛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타인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고 있음을 안다.

자기 과잉의 시대, 절제와 겸손의 미덕을 일깨운 '인간의 품격'과 고통의 시대, 함께 살기의 가치를 알려준 '두 번째 산'을 통해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저널리스트이자 작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신작 '사람을 안다는 것'을 펴냈다. 부제는 '서로를 깊이 알면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넓어지는가'다.

'사람과 관계의 가치'를 꾸준히 탐색해 온 그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이해받는다느 느낌만큼 만족스러운 것은 드물다"는 것을 알기에 단절의 시대, 우리 주변의 타인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일상의 미세한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를 얼마나 잘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적 반감과 비인간화, 사회적 분열이 사람들간의 연결성을 약화시키고, 우정을 차단하며, 친밀감을 지우고, 불신을 조장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로 서로를 소외하는 잔인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저자는 외로움과 비열함이 만연해진 사회를 만든 요소로 소셜미디어, 불평등의 확대, 공동체 활동 감소, 활개치는 포퓰리즘 등을 들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기술과 성향을 길러내는 데 실패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점, 누군가를 제대로 잘 바라보는 것은 아주 강력한 창의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다원적인 사회가 살아남으려면 신뢰의 조건인 '이해'를 보여줄 시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책에서는 제 능력을 믿고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기에 리더에게 '타인'이 잡히지 않는 '디미니셔(Diminisher)'가 되기보다는 관심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자기 자신을 더 크고 더 값고 더 존중받는 존재라고 느끼게 하는 '일루미네이터(Illuminator)'가 되라고 이야기한다. "우리가 부드럽고 관대하고 수용적인 따뜻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환하게 비추려 애쓰는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흔히 쉽게 딱지들



수많은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기술과 성향을 익히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불어버리는 성격 유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다"기 때문이다.

저자는 또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 관리자와 직원의 대화, 학생들과 기성세대의 대화 등 개인적 인 차이 및 권력 불평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어려운 대화'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에서는 상대방을 관객이 아닌 작가로 만들어라, 상대의 말에 손가락을 얹지 마라 등 구체적인 대화의 기술을 알려주며 MBTI 대신 외향성, 성실성, 신경성, 친화성, 개방성을 기준으로 삼는 '빅 파이브 성격 검사'에도 눈을 돌려볼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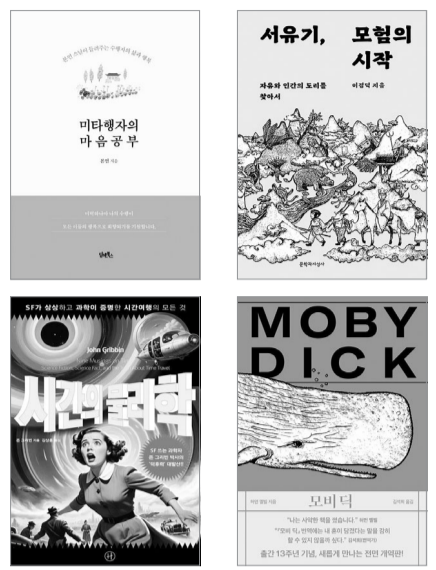
<웅진지식하우스·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미타행자의 마음공부=모든 일체 중생에게 보약인 '자비심'이야말로 마음 수련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한다. 불가의 자비관처럼 모든 존재는 맑은 마음으로 아(我)를 녹여야 하고, 고(苦)를 피하고 낙(樂)을 즐겨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생명의 논리는 같다는 주장 아래 나와 이웃까지 행복해지는 자리타(自利利他)의 정신, 사바세계의 가장 좋은 '인'인 나무아비타불의 자애 등을 언급한다. <담앤북스·1만6000원>

▲서유기, 모험의 시작=명나라 소설의 전성시대 속에서 등장한 '서유기' 정본의 완역본. '경전'을 찾아 서방정도로 향하는 일행을 그린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지혜를 준다.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생생하게 소개하며, 7세기 당나라 승려 현장의 모험담이 여러 가공을 거쳐 오늘날에 정착하기까지를 짚어본다. 손오공이 죽음을 고민하는 장면, 나와 타인의 자유를 돌아보는 장면에는 동아시아 사상과 철학의 진수가 깃들여 있다. <문학과지식사·1만6000원>

▲시간의 물리학=시간여행에 대해 아홉 단계를 통해 고찰을 이어간다. 1단계는 '시간과 공간은 유연한 시공간을 구성한다'는 명제로, 우리가 생각하던 물리적 공간을 뒤엎고 어느덧 통념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 밖에도 '빛보다 빨라지면 시간을 거슬러 오른다', '빛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등 흥미로운 명제들을



통해 운동과 시간의 상관관계, 물리학과를 지배해 온 뉴턴역학 등을 심도 깊게 이야기한다. <휴머니스트·1만6700원>

▲모비 딕=1820년 태평양에서 포경선 에이스 호가 큰 향유고래와 충돌해 침몰했던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소설. 등장인물과 작가 연보, 역사 해설 및 대담을 실어 소설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책은 '모비 딕' 완역본을 번역, 소개하는 데 시초가 됐던 김석희 번역가가 원고를 대조수정해 개조한 버전으로, 에이허브 선장이 다리 한쪽을 잃고 복수를 하기 위해 선원들을 이끌고 고래 모비 딕을 쫓아 가는 내용을 다뤘다. <작가정신·2만8000원>

성장-발전-원숙의 단계를 거치는 생물학적 인간, 장자

장자 잡편

원저자 장자·역해 양희석



양희석 전남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가 '장자(莊子)' 내편(2022년)과 외편(2023년)에 이어 잡편까지 기존 관점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말로 옮기고 해석하는 역해(譯解) 작업을 마무리했다. "노자 도덕경"으로부터 비롯한 노장 독해 여정의 종착점(정재서 이대 명예교수·전 도교문화학회 회장)이다. 장자는 크게 내편(7편)·외편(15편)·잡편(11편) 등 총 33편으로 구성돼 있다. 양 교수는 후지에서 "내게 장자는 늘 거대한 산이었다. 숲이 무성하고 운무가 자욱한 거산!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꿈꿔왔다. 온전하게 두 발로 그 거산을 넘는 날을!"이라고 긴 여정의 소감을 밝힌다. 또한 내편에 '도와 함께 하는 웅혼한 삶', 외편에 '젊은 철인의 길 찾기', 그리고 잡편에 '철인의 성장과 완성'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외편 서문에서 "내편이 농익은 수밀도라면 외편은 상큼한 풋사과이다"라고 밝혔던 역해자는 잡편의 매력으로 "꽤 넘치는 청년 장자와 원숙한 만년의 장자를 동

시에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외편·잡편의 위작설에 대해서도 "이질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장자의 사유와 통하고 있으며, 또 장자 당시 '저술'은 오늘날 그것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양 교수는 "장자"는 철인 장자가 자신의 완성된 철학을 '저술'한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장자라는 한 사상가가 철인으로 성장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전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장자 '잡편'은 '경상초' 등 11편으로 이뤄져 있다. 장자와 헤자를 비롯해 공자와 도적, 열여구와 백혼무인 일화와 '달팽이 뿔의 전쟁' 등을 통해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독자가 '장자'를 읽고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장자는 특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우언·寓言)와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중언·重言) 등 특유의 화법과 글쓰기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이야기 한 편 한 편을 우리말로 해제, 원문과 음독, 자구 풀이, 해설로 나눠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특히 '외물' 편 제1장(안파의 우환)에 나오는 '중인분화 월고불승화(衆人焚和 月而不勝火)'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월(月)을 육(肉)의 오사(誤寫)로 봐서 "그 육신도 본디 불을 견디지 못한다"로 독자적인 해석을 했다.

"바람이 강물 위를 지나가면 (물이) 줄어들고, 해가

강물 위를 지나가면 (물이) 줄어든다. (그래도) 단지 바람과 해와 더불어 강물을 지키자고 청하는데, 강물은 그것이 성가시다고 여긴 적이 없다. 수원에 힘입어 흘러가기 때문이다. (증발한 수증기가 바로 수원이 되는 것이다)." ('서무귀' 편 13장 천연의 세계)

이에 대해 역해자는 "천연의 세계를 '물의 순환'(Water Cycle)으로 멋있게 비유한 장자는 한결을 나아가 '열여구'에서 그 물 위에 '뭍이지 않은 배처럼 넘실넘실 떠다니며, 비우고 놀' 것을 제안한다. 이는 내편 '소요유' 제4-1장 '거대한 박의 활용법'에서 거대한 표주박을 배 삼아 강물에 띄우고 노니는 '소요유'와 일맥상통한다"고 풀이한다.

'장자'가 2000년 남도록 계속 읽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속에 혼탁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혜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장자가 당대에 진단했던 '외부에서 오는 우환'(人道之患)과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환'(陰陽之患)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양 교수는 "그렇다면 현실 상황을 치유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여기서 장자는 직답을 유보하고 있지만, 사실 불문가지이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서로를 잊고 지내듯이, 인간도 '천연의 도' 안에서 유유자적해야 한다는 것! 누차 강조한 바이다"라고 부연 설명한다. <마로니에·3만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젤리곰의 숨은그림찾기 : 봄날의 파티를 열으라=영원할 것만 같던 겨울이 가고, 젤리곰이 사랑하는 봄이 찾아왔다. 젤리곰과 함께 봄을 찾으러 농장, 정원, 뒷밭으로 떠나는 여정을 담았다. 포근한 봄 날씨에 닭, 두루미, 사슴 등 동물 친구들은 모두 신이 났다. 봄을 맞이해 모종삽과 물뿌리개를 들고 저마다 씨앗을 심는 동물들의 모습은 사랑스럽다. <톡!1만4000원>

▲쪼쪼, 쥐쥐, 비하냥야호, 캠프 가자!=다리가 짧다고 자전거를 못 탈까? 어디든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웰시코기 '쪼쪼'가 캠프에 나선다. 다리가 짧아 페달에 발이 닿지 않는 쪼쪼와 항상

페달을 돌리는 고양이 비하냥, 그리고 품직한 성격으로 일행의 짐을 챙기는 생쥐 쥐쥐 친구들이 3인용 자전거에 오른다. <파란자전거·1만6000원>

▲암산천재 계산법 기적의 사칙연산=달인의 성으로 떠나는 여행 속에서 '선물 암산법'을 알려줘 어려운 수학에 참신하게 접근한다.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의 암산, 19단 곱셈법과 '노'의 수를 줄여서 계산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가르침 등을 '칼럼'으로 수록했으며 수학공부하는 아이 부모님께 드리는 당부의 말 등을 담았다. <로그인·1만3000원>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